

權氏列傳

“사람이 곧 하늘이다”

민중의 평화로운 삶을 추구하는

기독교 안티키스트 權正生 (시중공파 화천군계 36세 慶秀) 제4편



주님은 짧은 일생을 줄곧 고난의 길... 소외 당한 자들의... 현장에서 고통하는 인간들과 함께 당신도 고통... 약자에겐 한 없이 악하고 강자에겐 불같이 항거했고... 모든 것에서 버림 받은 인간 그분이 바로 주님..

김목사에게 보낸 편지

대동이의 성자 묵자(墨子)의 “3표”와 같이 모든 것은 본原,用이 있다 했으니, 正生이 보는 기독교의 본은 “愛己愛他” 즉 남을 나처럼 사랑하는 것, 또는 그 이상의 경지이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빙자하여 교회를 만들고 이를 억압과 착취의 도구로 사용하면서 추악한 물질주의의 대행자가 되는 사제들의 존재에 대해 분노와 저주를 보내는 것이다.

신앙의 본이 믿음입니다. 原은 신과의 소통입니다. 用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이에 어긋

나는 것은 종교가 아니니 파괴하고 없애야 한다는 것이 정생의 단호하고도 확신에 찬 신념이다. 구원은 神과 我와의 소통에서만 가능하지 결코 거추장스러운 기만의 장막 속에서는 이루어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직교회의 종소리는 유난히 맑고 우렁차다. ‘누구라도 쳐 보세요. 당신이 바라는 만큼 얻을 것입니다. ‘정생이 평생을 시계처럼 정확하게 치던 안동 빌방이 언덕 아래 교회는 그렇게 미소 띤 정생의 영혼의 너울대는 한 언제나 너그럽고 은혜가 넘치는 곳이었다.

그의 이런 ‘안티키스트’적인 생각은 동족상잔의 비극을 나타낸 ‘갈’ 속에 리얼하고도 진실하게 나타난다.

“내가 쓰러 탱크도 싫지만 미국 비행기도 싫다. 우리 학교 대려 부신건 미국 비행기다. 너그는 미국 비행기가 우리 땅 다 때려부셔도 너그만 살아나면 된다고?”

초가집에 있던 마을

“그놈들 인민군들 인민을 위한 다는 것 새빨간 거짓말이요. 국군도 마찬가지요. 나라와 백성을 위한다는 것은 핑계밖에 없었소.”

용원이에 아버지와 손남이네 아버지

여기서 정생이 생각하는 진정한 ‘민중의 원리’란 이런 것일 것이다.

민중무고(民即無辜), 민중은 원래 체제

안에서는 무고하다는 것이다. 그저 하루하루 먹고사는 민중에게 그 무슨 국가나 민족이니 하는 허울로 지배논리를 가지고 착취하려는 계층들과는 다르게 죄가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민주사회화, 세계 사회화가 진전되는 이즈음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적 이익의 논리대로 한다면 결코 세계 민중은 사해동포(四海同胞)가 될 수가 없다.

민민상통(民民相通), 이런 민중은 기본적으로 평화를 갈구하는 것이니 이제 세계일통(世界一通)의 시대에 民의 직접통치가 가능한 시대에 세계의 民이 단결하여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세계적인 민중의 연대가 이런 부당한 지배계층의 소멸을 가져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소위 세계정부는 것도 이런 민중의 연대가 아니라면 그것은 더욱 더 비극적인 통제의 굴레가 과학의 힘으로 가능한 비극적 시대가 될 것이다.

만민일동(萬民一同), 民(民)은 원래 전쟁 포로를 잡으면 눈(目)에 갈로 금(金)을 그어 노예로 삼는 것을 말한다. 人은 지배계층이다. 이 둘을 합하여 人民이라 한다. 세상의 민중은 그 인종,관습,체제에 관계없이 근본적으로 동일한 입장이란 것이다. ‘평화롭고’ ‘배고프지 않고’ ‘휴식이 필요한’ 존재들이란 것이다. 즉, 평범한 시민은 국적이 관계없이 개인과 가정의 생업과 생존을 위하여 삶을 영위하려는 동일한 처지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한티재 하늘>에서 ‘천지가 흔들리고 난리가 나도 세상에는 아기가 끊임없이 태어났다.’라는 말로 민초의 끈질김과 영원성 그리고 희망을 설화하고 있다.

그 누구의 글에서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청춘은 사랑을 하고, 어머니는 아기를 낳았다.’라는 구절이 있다.

그리고 정생이 꿈꾸는 것은 이와 같은 안티키스트적인 사상으로 진정한 ‘공동체’ 그것도 ‘농촌 공동체’를 생각했을 것이다.

서로 돕는다는 것은 나에게 얻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남는 것을 남에게 주어

서 그 효용을 극대화하는 지극히 평범한 경제 원리에서 출발한다고 본다.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돕는 것’ 보다 ‘없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돕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이해 할 수 없듯이,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이 더 사정을 잘 안다는 것이고 이런 상부상조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윤리제이고 올바른 경제 논리라는 것이다.

이제 민족분단의 시대에도 민족간 ‘有無相通’의 대원칙에 충실한다면 우리 민족의 앞날에도 영광이 있을 것이고 그 ‘萬國活活南朝鮮’의 대대언이 실현될 날도 멀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正生은 그의 정재(淨界)를 北의 어린이에게 써달라고 했던 것이 아닐까?

이제 무술년 황금개띠 해에 그 58년 개띠들의 시대가 열리고 평화와 화합의 날이 밝아온다!

글: 권경민



일직교회 중탑에서 권씨 시인 두 사람, 옥희 보현 권오철 선생 기념사업회 회원.

안동권씨평화화수회

교동-강화-김포-고양-파주-연천-철원-포천-화천-양구-인제-고성 을 연결하는 휴전선 155마일의 인근 지역의 죽친을 위주로 특정한 개념(平和)에 의해 종친회가 구성되어 지는 것은 이 평화화수회가 처음일 것이다.

평화화수회는 민족과 민주와 민생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개념에 충실한 권문의 인물을 찾아내어 승조 정신을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상징은 기존의 불꽃, 산, 권, 나무 등을 음양오행,역경에 의해 재구성 하여 만들 고저한다.

■연락처: 고양시 유림회관 302호, 안동권씨평화화수회(安東權氏平和花樹會)준비위원회 권오철 ☎ 010-8346-8881

外權氏列傳 II

안동권씨 외손자 성호 이익(3)

조선은 주자학의 나라였다. 조선의 주자학은 본래의 주자학보다 더 도덕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조선 초기에는 주자의 해석에서 한 글자도 다르게 해석하면 사문난적으로 몰아가는 분위기가 있었다. 주자보다 더 도덕적이었다고 평가받는 철학자는 퇴계이고 주자도 미진한 점이 있는데 왜 주자학에 갇혀 주자의 해석에만 의존해야 하는지나 대하 중용 등을 주자와 다르게 해석하려 한 사상은 백호 윤희였다. 성호 이익은 주자학에만 얽매이지도 않고 또 주자 들지도 않았다. 그는 주자가 패도의 상징이라고 저평가한 관공을 높이 평가했다. 그 뿐인가 변법을 성공시켜 진나라 통일의 토대를 일구었던 상앙에 대해서도 상자(商子)라고 거침없이 이야기한다. 더 나아가 법가의 이론을 집대성한 한 비자까지 거론하며 “착한 길로 인도하는 데에는 덕과 예보다 좋은 것이 없고 악한 것을 그치게 하는 데에는 정사와 형벌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고 말한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목을 좇는 풍속이 도도한 세상인데 형벌로 금지하는 것을 느슨하게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어찌 옳겠는가?” 하며 국가를 다스리는데 덕만큼 좋은 것은 없지만 이익이 악으로 작동하여 세상을 혼란하게 할 때는 그 혼란을 구제하고 질서를 유지하는데 형벌의 적극적인 사용과 효용성을 주장하는 것이다. 때문에 주자학에서 한 걸음 더 내딛으려고 몸부림쳤던 사상가의 즐거가 소위 실학의 계몽이라 할 수 있다.

성호는 실학의 중심 줄기를 알고 있다. 성호는 맹자의 왕도란 백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한 구절일 뿐이라고 말한다. 백성들은 부지런히 자기 힘으로 흙수와 가뭄이 닦쳐도 살아갈 방안이 있는데 빨방이 흠어져 구렁텅이에 나뭇굴며 죽음을 이르는 것은 모두 포악한 정사에 시달려 살 방도가 없기 때문이라고 갈파한다. 그러면서 삼대가 호랑이에게 물려 죽어도 떠나지 않는 여인의 이야기를 인용한다. 공자가 제자들과 태산을 지날 때 길가의 무덤 앞에서 슬피 우는 여인을 보고 왜 우느냐고 물었다면 그 여인은 이 고장에서 시아버지와 남편이 호랑이에 물려 죽고 자식까지 호랑이에게 물려 죽어서 그렇다고 말했다. 그러자 공자가 그러면 “왜 이곳을 떠나지 않겠는가”라고 다시 묻자 그 여인은 “이 고장에는 가혹한 세금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공자는 그 말을 듣고 제자들에게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苛政猛於虎)는 유명한 말을 남긴다. 성호가 살았던 시대에도 동네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동네가 텅 빈 경우가 비밀비재 했던 모양이다. “재물은 부자들한테 다 물리고 백성의 재산은 고갈되며,” 여기에 가혹한 정치는 정지대로 백성을 괴롭히고 있으니 왜 온 고물이 텅 빈 정도로 백성들이 다 흩어지지 않았는가 하고 묻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떠났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는 급선무는 포악한 정치를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포악한 정치를 금지하려면 먼저 뇌물 받는 관리를 처벌하는 법을 엄히 시행하여 뇌물 받는 것을 적발하는 경우는 전쟁에서 공을 세운 것과 같이 상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성호는 국가경영과 백성들을 보호하는 왕도정치를 위해 덕과 법을 전략적으로 활용한다. 매우 탄력적인 사유방식이다. 법은 왕도정치를 위한 하나의 중요한 통치 도구로 자리매김하는 셈이다. 도덕만을 지고지선으로 하는 주자학과는 상당히 다른 사유방식이다. 성호는 평생 자아존중적인 입장에서 지금 여기의 현실을 기반으로 실학적 사유를 전개했다.

문과 무에 대한 사상적 태도 역시 전략적이다. 당시 붓으로 문장 짓는 것을 최고로 여기며 문치에 경도되어 있고, 심지어 문과 무가 원수가 되어 있을 때 성호는 문치(文治)와 무비(武備)는 어느 한 가지도 빠뜨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성호는 “무만 있고 문이 없으면 어지러워질 것이고, 문만 있고 무가 없어도 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언제나 새로운 사유방식은 지금 여기의 현실을 떠나지 않는다. 당시 주자학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철학 역시 그 철학을 탄생하게 만든 그 철학의 현실과 역사적 상황을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지금 여기’와 ‘보편’이라고 하는 두 축의 새끼줄을 새로운 사유방식으로 새끼 꼬기 할 때 잘 짜여진 철학적 직물은 탄생하는 것이다. 그 의미만큼 우리의 현실은 얽혀 있다. 오늘날 한국의 철학적 과제 상황 역시 이러한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 성호의 사유가 사상적으로 철학적으로 중요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글 권행완

4자성어

仁必知經, 智必知權

왕희지 체

인필지경, 지필지권

당송 팔대가 유종원(柳宗元)의 ‘단형론(斷刑論)’에 나오는 말이다. 어진 것은 꼭 원칙을 아는 것이요, 지혜로운 것은 권도(臨時變通)를 꼭 알아야 하는 것이다.

즉, 원칙만 알고 권도(權道)를 모르면 앞뒤가 막혀 답답하고, 권도만 알고 원칙(原則)을 모르면 부패해 진다는 것이다.

권도는 비상한 경우에만 부득히 써야 하며, 그리고 조건없는 것이어야야 정당한 평가를 받게된다는 것이다



유종원(柳宗元, 773년-819년)은 중국 당나라의 문장가·시인이다.

SMU 100th Anniversary advertisement with background image of a person on a path and SMU buildings. Text includes '세명 100년의 대강령을 향한 도전과 혁신!' and contact information for SMU.

Advertisement for the 30th Kwunmun Family National Physical Education Conference. Includes details about the event, location (National Sports Complex), dates (April 22),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organizing committee.